



※ QR코드를 통해
"합격지수100,
탁월한 교육학논술
전문가 권지수교수"
의 2025학년도 대비
강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대비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 및 모범답안 (1)

| 권지수 교수 | 박문각 임용 노량진학원 |

다음은 A 중학교에서 미래사회 대비 교육에 관해 여러 교사들이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학교 교육과정 설계, (2)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3)학습을 위한 평가, (4)교사의 자발적 노력에 관한 것이다. (1)~(4)를 활용하여 '미래사회 대비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20점]

윤 교사 : 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화사회가 도래하고 그에 따라 미래사회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황분석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 맞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개발된 새로운 교육과정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살피 후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량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현행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역량 형성의 학습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사 : 미래사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를 놓을 수는 없죠. 교실 수업에서도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동기와 능동적 학습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게임화(gamification),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할 때 첨단 테크놀로지를 교실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러닝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러닝의 한 형태이며, 이러닝은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게임화는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의 요소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목표, 규칙, 피드백, 보상, 레벨, 이야기 등의 게임 요소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적으로 행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해요.

김 교사 : 미래사회를 선도할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지 측면에 치우친 평가보다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전반적인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평가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하여 수업 중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평가에서는 타당도에 유의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그 평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박 교사 :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결국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여러 가지 학교조직을 구성하거나 활용하여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야 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내 자율 장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할 것입니다.

<보기>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윤 교사의 견해에 따를 때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일 2가지를 스킬벡(Skilbeck)의 교육과정 개발모형(SBCD)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역량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 2가지 제시 [4점]
- 이 교사의 견해와 관련하여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의 학습 효과 1가지, 게임화(gamification)의 교육적 효과 1가지와 보상이라는 게임 요소가 지난 교육적 부작용 1가지 예상,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1가지 제시 [4점]
- 김 교사의 견해와 관련하여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방법 1가지,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하여 수업 중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타당도 유형의 명칭 1가지와 그 평가에서 얻은 정보의 교육적 활용 방안 2가지 [4점]
- 박 교사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자발적 노력을 위해 구성 또는 활용 가능한 학교 조직 1가지,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교내 자율 장학의 형태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모범답안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교육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사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설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학습을 위한 평가, 교사의 자발적 노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시문의 교사 간 대화를 토대로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논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스킬벡(Skilbeck)이 제시한 학교교육과정 개발모형(SBCD)에 근거할 수 있다. 먼저, 교사는 상황분석을 해야 한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 학교 환경과 같은 내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변화, 학부모의 기대나 교육체제의 요구와 같은 외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된 교육과정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해석(판단)과 실행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변화된 새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측·판단하여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한 후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담고자 한다면 현행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제시하면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그러한 역량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과지식을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교수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로는 분과적으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교과지식을 조직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실행해 나간다면 미래사회를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수방법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도 미래사회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게임화(gamification),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 필요한 것이다. 모바일

러닝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해 준다. 모바일 러닝을 하면 학생이 모바일 기기를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돋는 효과가 있다. 게임화(gamification)는 게임의 요소나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 학생의 몰입을 촉진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레벨 달성을 따른 성취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상에 지나치게 얹매일 경우 학생의 내적 동기가 저하되거나, 학생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불안감이나 좌절감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챗봇(chatbot) 활용 수업을 들 수 있다. 챗봇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문자와 음성을 통해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챗봇은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서 맞춤형 질문과 응답을 하고 각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 안내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게 되면 미래사회를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지 측면에 치우친 평가보다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중요하다.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수행평가가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으로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하여 수업 중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이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므로 내용 타당도를 고려해야 한다. 형성평가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학습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형성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학생에게 피드백 해 줌으로써 학생의 학습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유발 자료로 활용한다.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등 전반적인 평가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 미래사회 대비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교사가 교내 자율장학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장학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임상장학이다. 교사는 장학담당자와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업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동료장학이다.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전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나간다면 미래사회를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학습을 위한 평가, 교사의 자발적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학교 당국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 뒤따를 때 학교교육은 미래 사회를 충실히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